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본격 수확 기 시기에 따라 농촌 일손돕기

편집국

승인 2025.10.29 20:53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지난 29일 양촌읍 유현리에 위치한 2030세대 농가를 찾아 ‘2025년 농촌 일손돕기’에 나섰다.

이 행사는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과 공사 직원들이 농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.

이날 김포지사 직원 20여명은 시설채소 농가에 방문해 무 농작물 수확과 함께 주변정리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는 등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구슬땀을 흘렸다.

김태호 김포지사장은 “직접 영농현장에 방문해 수확 작업을 돕는 것은 굉장히 보람찬 일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수확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방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편집국 mr@gimpo.com

<저작권자 © 미래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